

요한일서 4장으로 가 봅시다. 되돌아가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4).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소유권의 인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며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려는 의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보증으로서 완전히 사서 소유하게 될 때 까지 주신 것입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1).*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고 하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도 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기 쉬운 것 중의 한가지는 거짓 선지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틀렸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빈번히 거짓 선지자가 90%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사람들로 속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진실입니다. 사단이 와서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니?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빼 놓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단은 성경 말씀을 문맥이 맞지 않게 취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결론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 사역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있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 경계하십시오 “이 봐,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책이야. 성경을 읽지 않는 게 가장 좋아. 성경을 설명하는 우리 책이나 읽어. 성경을 잘 설명하는 우리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어려운 책을 평생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책들을 팔러 다니거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아닌 책들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이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후 그들은 이상한것들을 꺼집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은 “그저께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걸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여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온것 입니까? 그건 성경을 읽어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와 증인이나 몰몬교리에서 나왔거나 다른데서 온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럴듯한 문제가 생겨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버트 암스트롱 (Herbert Armstrong) 으로 부터 나온것을 가지고와서 하는말이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생각한것이 아닙니다. 어떤이가 당신의 마음에 바보같은 생각을 심어준것 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런 생각이 나올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성경해설이 이상하면 틀린 해석이 나왔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는것을 말씀하셨기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진리의 밭에 도달하는것에 관하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은 왜곡된 사상을 가졌고 “오, 성경은 읽지마세요. 우리 책을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책을 읽지않고는 그들의것과 똑같은 이상한 왜곡된 진리가 나올수없기때문입니다. 아주 야비한것 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144,000 명을 인치시며 각지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등등...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것을 인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그것은 실제로 교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7장을 읽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찾을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거나 다른 사람들이 읽고난후에 “아, 그것이 참뜻이구나” 라고 말해줄때 “오, 그거 참 재미있군, 전엔 그걸 몰랐네” 할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며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2).*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것” 을 표면적으로 본것만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며 히브리어 여호와-슈아 (Jehovah-shua) 또는 여호수아 (Joshua) 의 축약된 것입니다. “여 (Jo)” 는 히브리어 여호아 (Jehovah) 의 축약형 입니다. 여호수아 의 “슈아 (shua)” 는 히브리어 이며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야 (Mashiyach 나 Messiah) 혹은 기름부음 받은자 에대한 헬라어가 그리스도 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이시며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 이십니다. 만일 그들의 증거가 이것과 같지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진리와 찬란한것들을 말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슈아 (메시아) 이심을 부인하면 그들은 거짓선지자들 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3).*

오늘날 대단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4:4).*

3장 24절로 돌아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안에 거하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더 크 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4:5).*

그들의 메시지는 세상이 듣기좋아하는 인기있는 메시지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능력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6).*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그들의 증거로 그것을 알수있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7-8).*

하나님의 영을 알수있는 둘째방법은 내삶에서 영의 열매가 사랑인가 하는것입니다. 즉 서로를 향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만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면 그것이 내속에 거하는영이 성령이심을 증거하는 것 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수도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계신것을 난 알아.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알수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우리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단도 가짜 방언을 할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안에 거하신다는 참된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썩과리가 될뿐입니다” (고전 13:1). 그것은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다만 증거는 사랑일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것을 증거하므로 성령임을 알게됩니다. 내 삶에 거하는 영의 열매와 결과 가 사랑 즉 그리스도안에 있는 내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면 그것이 성령임을 알수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것들을 사랑하는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 할수있다면 당신에게 성령이 계심을아는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상적이거나 사랑인체해보이는 할리우드의 노폐물 (junk) 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가족단위안에 가지는 형제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Eros) 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Phileo) 라는 사랑도 있으며 깊은 감정적 사랑인가 하면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감정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적 수준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사랑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에로스 (육체적 사랑) 에 빠져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영어에는 헬라이어처럼 광범위한 뜻을 가진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땅콩에서 부터 나의 손자 와 내 아내와 밀크 초콜렛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합니다. 나는 모두 다 사랑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밀크 초콜렛을 사랑 (좋아) 하는 (love) 것과 내 아내를 사랑 하는 (love) 것이 다르지만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이어 에서는 다른종류의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밀크 초콜렛에 대한 사랑은 내집작에 에로스 즉 육체적인 사랑일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서로 사교하는것을 정의할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에 속삭이며 말하기를 “난 널 사랑해 (eros), 얘이야, 나는 너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껴.”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입니다. 나는 유익을 얻는 관계를갖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것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는것 즉 나의 만족을 느끼는것입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 은 좀더 깊으며 상호간에 주고 받는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것들에 동의하고 서로의 이해를 나누며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결혼은 50/50 의 제안입니다” 라고 말한것 처럼 그것은 주고 받는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는것을 전혀 보지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75/25 가 더 맞을것같아요. 그러나 누가 75를 가졌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주는것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 고전에 사용되지않은 단어이기때문에 이 단어는 거의 예수님 자신이 신약성경에 만들어 넣으신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정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그 단어의 정의를 내려야합니다. 그것이 모두 언어에 관련된것으로써 어떤소리는 어떤의미를 전달한다는 상호간의 동의입니다. 아가페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약성경의 두군데 에서 이단어를 정의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믿는것 입니다. 그것들이 다 아가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다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사람중심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것이며 갚아주기를 바라지않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돌려받기를 기대하지만 아가페는 돌려주는것을 바라지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너 나한테 빚졌지. 너를 우리집에 두번씩이나 초청했는데 네가 나를 초청할때까진 다시 부르지 않을거야.” 서로의 이익을 위할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따지지않고 주는것입니다. 사랑은 주는것이 본질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사랑이 내안에 있는영이 성령이심을 증명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사랑할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대한 그들의 증거는 무엇이였습니까? 그 영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참하나님 이시라고 내게 증거합니까? 그렇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단이 그것은 가짜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8).*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기위해 쓰여졌다, “하나님은 사랑 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4:9).*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오, 나는 밖에 나가서 자연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연이 말해줍니까? 당신이 밖에 나가 자연과 대화할때 늑대가 작은 토끼에게 뛰어가 잡아먹는것을 보았습니까? “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연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사자가 양들을 물어뜯는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독사가 푹푹말고있으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해주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있는것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 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자연을 보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양과 함께 누어있고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것을 보지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지 못하는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타락한 자연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해주지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십자가외에 다른 어떤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의심 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한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것을 허용하셨니? 만일 하나님이 너를 사랑 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라고 질문하면서 도전하면 그는 비번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유력한 증거를 내놓을수 있다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져있는 곤경상태에 빠져있는걸 봐도 알수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고 패배시키려고할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단한번에 모든것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 십자가를 바라 보기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4: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를 통하여 살도록 하셨기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거기서 그의 사랑이 나타난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때문에 그의 아들을 당신 대신에 죽도록 이세상에 보내신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신것입니다.

삶의 성경적 정의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거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것 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가 작용하면 그사람은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코마 상태 에 빠졌고 뇌일혈로 그의 호흡기를 지배하는 뇌의 일부가 파손되어 산소기를 부쳐놓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EEG를 붙이고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그들이 잔잔한 진동을 모니터에서 지켜봅니다. 그가 거기에 누어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 말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이름을 말해 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사람을 꼬집어 봅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를 관찰하던 사람이 “당신이 그사람을 꼬집었을때 모니터에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걸보면 아직 살아있는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때 그를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뇌의 활동도 멈추었으며 의식도없습니다. 그때 의사는 “원, 그는 갔습니다” 라고 말할것입니다. 의식은 사라지고 몸만 남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기능을 다할찌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성경은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것이고 참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가지는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요.” 어떤이들은 그들이 “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말할때 그들은 큰 선심이라도 쓰는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쩔단 말 입니까? 그것이 증명하는 단 한가지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것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할 모든 이유를 가졌기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건 큰문제가 아니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합니다. 그분은 사랑할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당신을 아실때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그 근원을 아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자아를 아는것, 나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감당하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지시고 죄인인 나를 받아드려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되어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수있도록 하시려 하신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11).*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용서와 사랑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신것처럼 사랑하고 그가 용서하신것처럼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내 용서의 측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상당히 큰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질때 하나님이 내게주신 사랑으로 인해 성령께서 내안에 역사하시는것을 알수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있으니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며 우리를 그의 교제에 받을수있게함 입니다.

예수께서 1,600 만불 빛진 하인을 가진 주인의 이야기를 용서에 관한 비유로 하셨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불러 명하기를 “빛이 만기가 되었으니 빛진것을 다 갚으라.” 그랬더니 하인이 “오, 아직 돈이 없으니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웬찮다. 그만 두어라. 네 빛을 탕감해주마.” 그는 밖에 나가 자기에게 16불 빛진 동료하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내게 빛을 갚겠다고 했으니 빛진것 빨리 갚아.” 그 동료 하인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며칠만 더 여유를 주면 다 갚을께.” “안돼, 네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 그리고 그는 그 동료를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자기하인의 행한것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봐, 자네 내게 빛진게 얼마였지?” “1,600 만불이었습니다.” “그빛을 내가 탕감해 주지않았던가?”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동료를 16불때문에 옥에 가두었는가?” “좋아, 그러면 그빛을 다 내게 갚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돈의 액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송두리채 다 용서해주셔는데도 어떤사람이 내게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잊지않으려고 합니다. 첫번째 기회에 보복을 하고 난후에 그것을 잊을수 있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못하겠으므로 내형제에게 적개심을 품고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오, 한뭇치요, 주님, 한짐이요.” “그래, 어떻게 너는 형제의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는것이 마땅하니?” 그가 사랑하신것 같이 사랑 하고 그가 용서하신것 처럼 용서하라 는것이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4:12a)*

모세는 어떤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사람이 없었던걸 믿어야겠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후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보면 살수없다. 내가 여기 바위 틈에 들어가있으면 내가 지나가겠노라. 내가 지나갈때 밖을 내어다 본후 후광을 보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후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할 정도로 빛이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뵈기전에 먼저 새로운 몸을 입어야합니다. 이 현재의몸으로는 하나님을 뵈수없습니다. 어느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4:12b).*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 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안에서 온전케 되는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양보할때 성령충만해지며 내안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안에서 온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때 나도 그가 사랑하신것 같이 사랑할수 있을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4:13).*

그것은 3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것 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한것을 여러번 보게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4:14).*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목적을 다룬 제 1장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전야를 기억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 장에서 그의 오신목적은 우리의 죄를 멸하러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의 오심의 다른 목적을 “세상의 구주가 되려하심” 이라고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4:15).*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몰몬교에서 믿는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아들중의 하나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여호와와 증인도 그를 하나님의 한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 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4:16).*

여러가지 증거를 다룰때 그 영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단도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안에 거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의 열매인 사랑으로 압니다. 성령이 내안에 계시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4:17).*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에서 우리의 본이되십니다. 그가 사랑하신것 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 다” 라는 말씀을 몇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냉담한 마음으로 돌아서기 보다는 사람들의 필요한 도움에 우리의 마음이 동정심으로 움직일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안에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날에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게될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므로 안전하기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4:18a).*

만일 두려움에 사로 잡혀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안에서 온전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될지 확실치 않아. 이것이 나를 망칠줄도 모르겠어. 이것이 끝장일수도 있어. 이것이 아마 그여자가 쓴글의 전부일꺼야. 좋지않아 보이는데, 헤어날 길이 없어. 무얼 해야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것을 알았다면, 무슨일이든 당신에게 벌어지는것은 하나님이 허락 하신것이고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마, 엉망진창 이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일이 되게 해주실거야. 그 사람들이 집은 전당잡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언이든지 이루실줄로 믿어.” 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의 사랑이 내안에 온전케 되었을때 확신이 옵니다. 나는 무슨일이 닥쳐 오든지 그것을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은 아주 고통스러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4:18b-19).*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여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시작하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분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심지어 교회안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이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해 동안 들었습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한참동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대한 반응 으로 우리에게 도로 주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시작하고 하나님은 반응 하시는분으로 만듭 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분이시며 나는 그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내 찬양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기 위한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풍성해서 감당할수 없기때문에 드리는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십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으로 움직이는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단지 이사랑에 대하여 반응할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할수 있게되기위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선하심을 알아야합니다. 그 사랑을 모두 그리스도안에서 알아야합니다. 그것을 알게될때 비로소 반응할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알지못하는것에 대하여 반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여 나는 그에대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라 하고 (4:20a).*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일곱번째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것입니까?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수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것을 꺾아내리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4:20b).

스누피 (Snoopy - 만화에 나오는 개 의 이름) 처럼 “나는 세상을 사랑해, 내가 싫어 하는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 (4:21).

한울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당장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이웃과의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발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라고 질문한것을 기억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것이니라.”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때에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눅 18:18-23). 그가 말한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고 간음 하지도 않았으며 이웃에게 거짓말 한적도 없습니다. 어릴때 부터 이 모든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는데 먹고도 남는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필요한것 이상으로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있으며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기 싫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모르죠 “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뿐만 아니라 계명도 다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을 살펴보면 당신은 계명을 지키고 있지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